

광주서 오피스텔 수백세대 중복분양 사기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시행사측 잠적...450명 수백억 피해 투자 목적 10채 계약도...풍암동도 분양 중 피해 확산 우려

광주시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오피스텔) 건축 시행사가 투자자들을 꾀어 오피스텔 수백세대를 중복 분양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현재 사기 분양 피해자만 450여명에 이르는 데, 이들 대부분이 거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적게는 1인당 1~2채, 많게는 10채 이상 계약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이 시행사는 광주에 또 다른 오피스텔 분양도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낳고 있다.

◇“회사 보유분 싸게 판다” 중복(사기) 분양=오피스텔을 정상 분양한 뒤 이를 2중, 3중 중복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기분양이 이뤄진 건물은 광주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사기 분양 행각을 저지른 것

은 이 건물의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지앤디 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2013년까지 총 482세대(1호당 면적 22㎡) 가운데 80% 이상을 7000만~8000만원에 정상 분양한 뒤 자금난 등을 이유로 중복 분양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까지 지역 생활정보지와 부동산 사무소 등을 매개로 피해자들에게 “회사 보유분 오피스텔을 절반가에 판다”는 식으로 꾀어 마구잡이로 중복 분양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사용승인이 났는데도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되고 매물이 계속 쏟아지자 최근 피해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 오피스텔 1세대에 원분양자 외에도 여러 명이 중복 계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사기의 실체가 드러났다.

중복 분양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행사 관계자들이 연타치지 않아 피해자 254명은 지난 19일 경찰에 시행사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비상대책위를 꾸린 피해자들은 1차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254명 외에도 추가로 확인된 200여명이 조만간 2차 고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왜 피해 컸나...“거주 아닌 투자 목적 여러채씩”=수사에 나선 경찰은 분양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고 금액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원인에 대해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에 따른 분양 계약”에서 찾고 있다.

1차적으로는 시행사 관계자들의 악의적인 사기 분양 행각이 원인이지만, 최대 10채(호)를 한꺼번에 계약한 피해자들의 계약 형태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행사 외에도 지인에게 투자 권유를 받고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은 원분양자들과는 달리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나 시행사에 채권을 갖고 있는 업체의 계좌에 1호당 4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대금을 입금한 것도 화를 키웠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시행사 측이 자금난으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완공 후에는 하청업체에 주기로 한 돈을 못 쥐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상황이 정리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식으로 안심시키며 철저히 속였다”면서 “미심쩍은 마음에 신탁사 측에 전화를 걸어 실제 명의자가 누구인지 물어도 개인정보보호상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신탁사도 한 통속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행사는 문제가 된 농성동 오피스텔 외에 서구 풍암동에 150세대 규모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분양 후 건축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크게 확산될 조짐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신탁사 공모 여부 등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khk@kwangju.co.kr

기념식 자리 배정 요구에 “내 무릎이라도 앉으라” 보훈처 간부, 5·18 유가족 성희롱 논란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훈처 간부가 5·18 유가족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후 6시 30분(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서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훈처 간부가 유가족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오월여미집 노영숙 관장(62)은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제주에서 초청한 4·3항쟁 유가족 등 관계자 50여명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훈처의 한 과장에게 자리 배정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보훈처 과장이 무성의한 태도로 ‘자리가 없는데 제 무릎이라도 앉으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 함께 있던 광주 서구 구인평화협력관이 “인권담당관인 제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고 항의했고 노 관장은 재차 항의했다. 이들은 곧이어 기념식이 시작됐고 국가기념일이라 현장에서 더이상 큰소리로 항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대응을 자제했다고 한다.

오월여미집 측은 “보훈처의 5·18 확대가 유가족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23일 보훈처 간부의 ‘유가족 성희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삼기로 했다”고 소식을 통해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PC방 살해’ 케냐인 징역 25년 선고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 PC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국적의 20대 난민 신청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 동기가 ‘귀국’이었고, 범행 전날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요청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씨는 지난 3월9일 광주의 한 PC방에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했으며, 다른 손님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M씨는 고국인 케냐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지난 3월8일 입대차보증금 100만원 중 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75만원을 되돌려 받았으나 케냐행 편도 비행기표를 구입하기에 부족해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M씨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위크워크 참가 자격으로 3개월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며, 비자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해 8월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을 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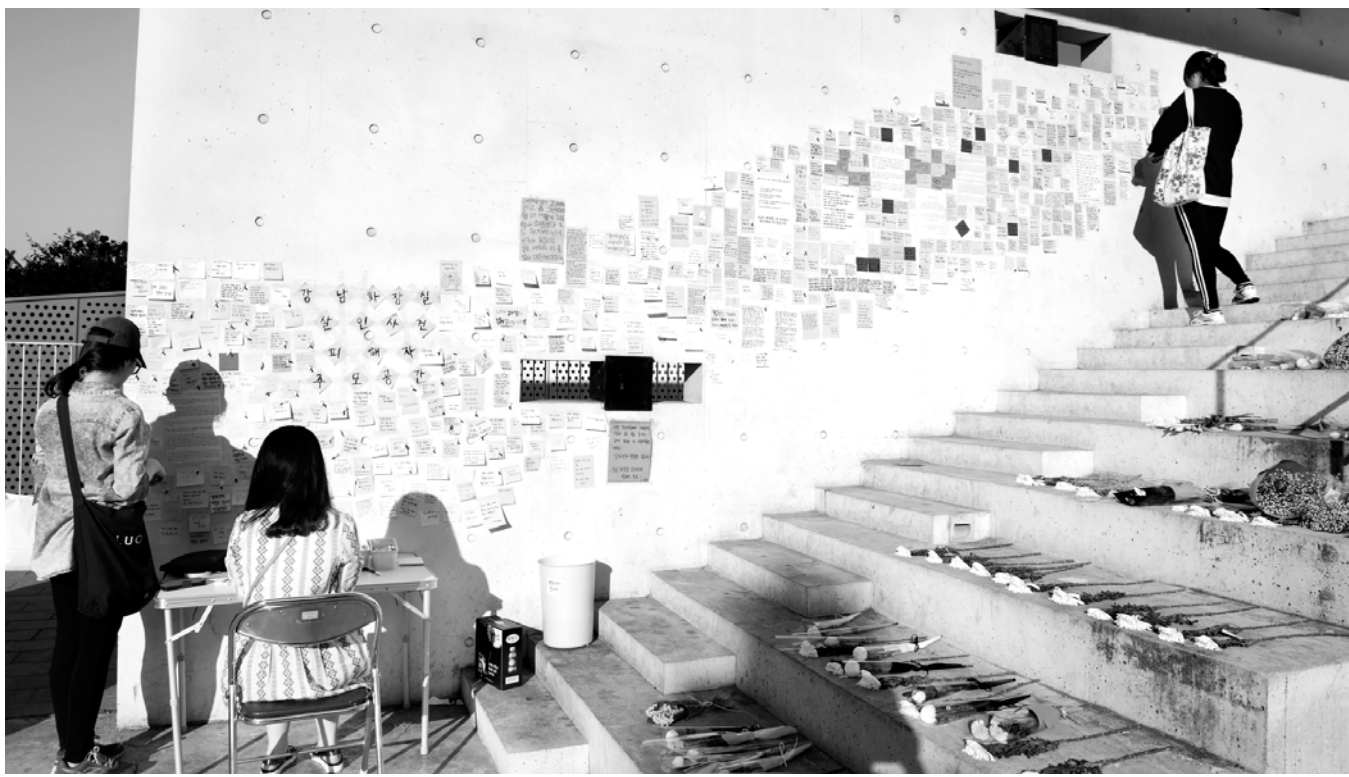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총책 등 14명 적발

광주북부경찰은 20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혐의(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 총책 오모(28)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환전상 류모(여·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4월 광주와 대전, 대구 등지에서 경찰과 우체국,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3억3000여만원을 횡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해 집안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관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건 뒤,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훔친 돈은 서울에 있는 류씨의 환전소를 이용하거나 대표통장으로 분산 송금하는 수법으로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2일 광주 서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광주폴리 ‘광주사랑방’에 마련된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의 벽에서 시민들이 피해자를 애도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대배치 열흘된 공군 병사 자살

자대 배치 10일만에 공군의 한 병사가 목숨을 끊었다.

22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생활관 1층 화장실에서 어등병 A(22)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일기장에 “힘들다. 2년간 버틸 자신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기장에는 구타·가혹행위·폭언 등의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서도 ‘강남역 살인사건’ 애도 물결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의 추모 열기가 광주에서도 번지고 있다.

22일 광주 서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있는 광주 폴리 ‘광주사랑방’에는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애도하는 300여장의 편지와 포스트잇, 그리고 100여송이의 국화꽃이 가득했다.

포스트잇 등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제가 살아남아 죄송해요’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이 그곳에는 지지않길 바랍니다’ ‘경시생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되어 안전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글이 가득했다.

이곳에는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추모 글이 붙기 시작했다.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이 서울, 대구, 울산, 부산, 대전 등에 이어 추모의 벽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이들은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추모’라는 대형 벽보와 함께 작은 책상, 팬, 포스트잇, A4 용지 등을 가져다 놓았다. 추모의 벽은 23일 자발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이날 추모의 벽에서 만난 한 시민은 “문지마 살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고, 내가 우연한 생존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음주운전자 속여 합의금 타낸 연인 2쌍 탈피



음주운전자로 몰려 차를 사고 보험금을 타낸 20대 연인 2쌍이 나란히 경찰서 행.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위자루 살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고, 내가 우연한 생존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말했다.

을 보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속여 440여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타냈다 는 것.

○전씨는 이날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1%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잠들어 범행을 눈치채지 못 했는데, 경찰은 “인근 CCTV 확인 결과 사고 직후 위자루 등이 내린 적은 없고, 40여분 뒤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노대지구 3층 상가 건물매매

노대동 광주은행 코너자리

◆ 토 251평, 건 431평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원룸 8개, 투룸 5개)

▣ 보 1억 6천, 월 1,500만

▣ 매가 → 28억

010-6670-9800 010-7384-7800

| (주)대신경매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 | 경매교육 |
|--|--|---|
| <p>▣ 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p> <p>→ 토 211평, 건 606평</p> <p>→ 요양병원 추천, 주차 원비, 4차선 도로 접</p> <p>→ 법원조대 부근, 임대걱정 없음</p> <p>▣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p> | <p>▣ 북구 운암동 (5층 상가 건물)</p> <p>→ 토 66평, 건 194평</p> <p>→ 지하음식점 1층~3층 (전71㎡) 4~5층(사무실)</p> <p>→ 운암동 공구의거리, 광고효과 좋음</p> <p>▣ 감정가 7억4천6백 - 최저가 5억9천7백</p> | <p>경매이제는 대중화시대!!</p> <p>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p> <p>▣ 매주 수요일 (오전)</p> <p>▣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p> <p>☆ 경매 실전 교육 ☆</p> <p>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p> <p>특수물건, 유저권, 가정임대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p> |
| <p>▣ 서구 양동 (숙박 시설)</p> <p>→ 토 174평, 건 424평</p> <p>→ 1층 (주차장,기운터) 2층~5층 (숙박시설,40개)</p> <p>→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접</p> <p>▣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p> | <p>▣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p> <p>→ 토 223평, 건 381평</p> <p>→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p> <p>→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원비</p> <p>▣ 감정가 12억 - 최저가 9억7천2백</p> | |
| <p>▣ 담양 (전원주택)</p> <p>→ 토 146평, 건 18평</p> <p>→ 금성중학교 인근, (주변 식당,전원주택지)</p> <p>▣ 감정가 6천 2백 - 최저가 6천 2백</p> | <p>▣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p> <p>→ 토 103평, 건 380평</p> <p>→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사무실)</p> <p>→ 재석중학교 부근, 아파트,상가 밀집지역</p> <p>▣ 감정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p> | <p>(주)대신경매</p> <p>직원구합니다.</p> <p>부동산, 경매 배우실분.</p> <p>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p> <p>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p> <p>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p> |
| 062-511-7800 | 010-6832-9700 | |